

## (사:시대와정신) 기말 에세이

: 총균쇠 vs 사피엔스

문화콘텐츠학과 2016\*\*\*\*\* 배상아

### 서론

폴리처상 수상작이라는 '총,균,쇠'는 재레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저술했다. 이 책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크게 무기, 세균, 철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환경의 변화라는 사실을 담고 있다. 즉 총, 균, 쇠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부흥하게 해준 기술이지만 결국엔 문명의 불평등을 낳은 근본 원인으로 결국엔 인류가 망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빙하기 이후 B.C 11000년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변화가 현대 인류의 불평등 (=동양과 서양의 격차)을 야기하고 민족, 국가, 문명 간에는 우열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총,균,쇠'가 지리적인 우연과 환경적 혜택의 불운으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신대륙이 15세기 말 구 대륙과 운명적으로 조우를 했을 때 이들 문명의 이기가 신대륙 사람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작용하게 되는지가 관심을 끌었다.

지구상의 각 지역마다 역사의 진행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뒤, 13,0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세계의 한편에서는 문자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기로 산업 사회가 발달했고, 다른 곳에서는 글을 아예 읽지조차 못하는 문맹 상태의 농경 사회가 발달했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석기를 가진 수렵 채집 사회가 발전했다. 이러한 역사의 불균형과 격차는 세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실 인데도 그 원인은 여전히 불투명 하고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총,균,쇠'에서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라고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환경적 차이만이 현재 우리가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유일까? 그동안 현대사회의 진보적인 기술이라 생각했던 기술들은 어찌 보면 인류의 문명을 갉아먹은 기술이지 않았냐는 필자의 주장이다. 이를테면 총이 생겨남으로써,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정복한 나라는 다시 정복당하는 굴레에 빠지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세균으로 인해 미지의 땅은 병으로 점령당하고, 그런 땅 위해 세워진 쇠파이프는 결국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가 돼버린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예언을 하고 있다.

## 본론

앞서 말했듯 '총,균,쇠' 너무 한가지 방면으로만 해석한 것 같아 비판적으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류의 책을 찾아 보던 중 유발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은 '총,균,쇠'와는 다르게 진화론을 전제로 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다른 호모 종 (호모 네안데르탈인, 에렉투스 등)중에서 더 진화되어 있었던 호모 사피엔스(우리)가 그들 중 살아남아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서 말해준다.

어떻게 인간은 유일한 승자가 되었을까? 크게 세개의 혁명으로 나뉘는 인류의 역사는 세가지 혁명을 거쳐서 호모 사피엔스가 그들만의 세상을 확고히 다지며 성경에서 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창세기 1:28)란 지상명령을 지키게 된다. 크게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 있는데, '인지혁명'은 경쟁 개체를 정복하게 만들었다. 종교·계급·권력·돈·국가 등 가상의 실재를 만들어냈고, 이는 인간만의 독창적 신무기가 됐다. 7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 '인지 혁명'을 통해 언어를 창조한 인류, 유사 사람 종과의 경쟁에서 승기를 잡은 개체는 다른 호모 사피엔스였다. 언어를 가진 인류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생태계의 연쇄 살인범”으로 불리며 동물에게 인류의 잔인함을 보여준 사피엔스의 이동은 여러 대형 동물의 씨를 말렸다. 7만 년 전 인간에게 일어난 '인지혁명'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이자 우연의 결과였다.

기원전 12000년경부터 수렵채집 생활에서 조금씩 정착을 하며 '농업혁명'을 이끌었고, 이는 잉여시간을 발생시키며 더 편리한 도구를 만들었다. 또 사유재산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면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전쟁을 해오고 있다.

기원 1500년 이후 중세를 벗어나 인간 자체에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무지'함을 깨달아 대항해 시대와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이 땅의 어느 동식물도 인간에 대적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법칙을 '지적설계의 법칙'으로 대체하려 한다. 유전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 공학 등 불평등이 고착화된 지구촌은 '자신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부류' 그럴 능력이 없는 '비참한 부류'로 나뉜다. “유전자 변형'언어 밥상에 오른다.” “중국, 황우석 교수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 동물복제공장 건설.” 등 인간은 무자비하게 동식물을 과학혁명의 희생자로 쓴다.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이 계속 될 경우 현존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멸종할 수도 있다고 유발 하라리는 현재 인간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가 시작됐다면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장날 것.”이라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하라리는 말한다. 눈먼 진화과정을 거친 인류, 지금은 공존상생과 행복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흐름과, 과학과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결합 속에서 현대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책 역시 아직 가설에 불가한 진화론을 너무 맹신적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 전체를 의심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빅 히스토리를 다루는 '총,균,쇠'와 '사피엔스'는 인류의 역사를 논하는 방향성에 있어 전혀 다

른 인류학 책이다. 이 두 책은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총,균,쇠'와 '사피엔스'가 묻는 근본적인 질문부터가 서로 다르다. 전자는 "왜 문명의 발달 속도는 대륙마다(민족마다) 달랐는가?"이고 후자는 "사피엔스는 어떻게 지구를 정복했는가?"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각 '환경'(총,균,쇠)과 '허구에 대한 믿음'(사피엔스)에서 찾는다.

'총,균,쇠'는 문명의 발달에 제일 중요한 가축화와 작물화,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처럼 비슷한 위도상에서 이동이 가능했던 환경에서 살고 있는 문명이 그렇지 못했던 문명을 정복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설명한다. 반면, '사피엔스'는 그들이 가진 허구에 대한 믿음이 때론 맹목적인 강한 협력을 이끌어내어 현재의 지구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인과로 요약하면 총,균,쇠는 환경이 가축, 작물화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가축, 작물화는 무기, 금속, 면역을 만들게 도와주었다. 이는 문명간 차이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반면 사피엔스는 허구적 믿음(신화,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협력하게 만들었고, 결국 지구 정복을 하고 상상의 질서(돈, 제국, 종교)를 세워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진보가 필연이다'는 것은 교조적일 뿐만 아니라 이 역시 허구의 믿음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비록 두 책 모두 우리가 어떻게 현재와 같은 모습에 이르렀을까?라는 같은 종착점을 향하고 있지만(두 책의 부제는 모두 '인류의 짧은 역사'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전자는 '물질의 소유' 여부였던 반면, 후자는 '상상에 의한 유인' 이었다.

"인류는 250 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살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다." 이는 '총,균,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류 진화의 상식이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인류 종을 단일 계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 라고 단언한다. 하라리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human)은 호모 속이며, 호모 속에는 사피엔스를 포함해 여러 종이 있다. 2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지구에는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루돌펜시스등의 여러 인간 종이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한 종(사피엔스)만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총,균,쇠'는 단일 계보의 '인간에 대한 역사'인 반면, '사피엔스'는 여러 인간종 중에 오직 살아남은 '사피엔스의 역사'이다.

또한, 1만년 전의 농업 혁명은 두 책 모두에서 언급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다. 한번 시작된 식량 생산 도입은 인구 증가와 양방향으로 멈출 수 없는 가속 페달을 밟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혁명 결과에 대한 두 저자의 시각은 완전히 상반된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농업 혁명은 문명 정복의 도구 소유를 위한 선행 조건'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는 '농업 혁명은 인간의 삶을 더 힘들고, 더 불안정하고,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농업 혁명 전의 수렵 채집인과 비교할 때, 직관과는 다르게 인구 폭발로 인해 질이 나쁜 식사가 제공되었고 가뭄과 홍수 때문에 받는 피해가 컸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오만한 엘리트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농업 혁명은 '총,균,쇠'에 의하면 혜택, '사피엔스'에 의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저주였다.

4 대 발명품 뿐만 아니라 항해술과 정치의 세계 리더였던 중국은 근대에서 현재까지 왜 기술 선도를 유럽에게 빼앗겼을까?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중국의 만성적 통일과 유럽의 만성적 분열”에서 답을 찾는다. 경쟁이 없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가진 중국은 남을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할 수 밖에 없었던 유럽에 비해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 전파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유발 하라리는 중세 유럽인이 가진 제국주의적 욕구와 과학적, 자본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제국, 자본의 사고방식이 내재화된 당시의 유럽인들은 외부 세계로 나가 새로운 발견을 해야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중국인들은 그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더딘 발전에 대한 시각 역시 ‘총,균,쇠’는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이유에서 찾는 반면, ‘사피엔스’는 정신적면에서 찾는다.

마지막으로, 옛날 잉카, 마야 문명처럼 지구상에 살았던 수 많은 민족, 동물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로 한정해 보면 오직 몇 종류만이 지구상에 살고 있으며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대형 포유류는 모두 인간이 가축화 한 동물이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가축화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는 마태복음의 구절을 이용해 비유한다. 즉, 역사는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반면, 유발 하라리는 생존보다는 개인의 행복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다. 경제 성장과 자유, 농업 혁명을 거친 인간의 보살핌 속 가축화 된 동물들은 생존에는 유리했으나 이로 인해 인류는 하나 같이 모두 불행했거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역설적으로 생물학적 진화(생존)가 사회적인 열등성(불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역사 속 개인의 행복을 다루는 것은 역사가 채워야 할 중요한 공백이다.

## 결론

이런 두 책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쇠’에서 역사적 사건과 그 해석에 대해 주관적인 의견을 최대한 자제한다. 반면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앞으로 100 년안에 발생할 초인간과 같은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경고한다. 많은 언론사가 이런 그의 비관적인 관점을 예측으로 기사화하고 있지만 정작 그는 ‘사피엔스’에서 ‘역사는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고 말한다.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이 궁금하던 차에 그가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다이아몬드는 미래는 현재보다 훨씬 안정되고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두 책의 방향성만큼이나 역시나 저자의 미래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와 유발하라리는 각각 역사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이 총,균,쇠 혹은 인공지능과 핵무기로 인해 점점 파멸되고 있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발하라리는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를 읽고 나서 감명을 받아 사피엔스라는 명작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총균쇠와는 다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본 유발하라리는 조금 더 인문학적이게 접근한다. 애초에 서기 1100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 두 작가들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생각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물론, 이 두 책만으로는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관점으로 역사를 풀어나간 책을 읽어보아야 견문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호랑이 사원으로 이름을 알린 태국 칸차납리주의 왓파루앙타부아사원에서 호랑이 시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가운데 이곳에서 새끼 호랑이 술까지 담근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생명을 잃은 아기 호랑이의 비극이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간의 욕심과 맞바꾼 호랑이의 생명이라 했다. 빙하기를 견딘 그 어떤 강인한 동물도 인간을 만나는 순간 멸종을 피할 수 없었다. '총, 균, 쇠'와 '사피엔스'는 우리는 어떻게 지금과 같이 되었는가?에 답했다. 호랑이의 비극을 보면서 두 책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되뇌어진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어떠한 통찰력을 얻었고 미래에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참고문헌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김진준, 문학사상사, 2005

유발하라리, 『사피엔스』, 조현욱, 김영사, 2015

"[총균쇠 vs. 사피엔스] 무엇이 인간 사회를 바꿀 것인가", <서울경제신문>, 2016. 4. 26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114616&memberNo=22213349&vType=VERTICAL>>, (2016. 6. 7)

"'유전자 변형' 연어 밥상에 오른다", <머니투데이>, 2015. 11. 2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12508231650658&outlink=1>> (2016. 6. 6)

"중국, 황우석 교수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 동물복제 공장 건설", <뉴스타운경제>, 2015. 11. 27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040>>, (2016. 6. 6)

"태국 사원서 새끼 호랑이 술 발견...인간이 제일 잔인한 동물", <쿠키뉴스>, 2016. 6. 6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678791&code=41131111&cp=nv>>, (2016. 6. 6)